

2011년의 試鍊과 反省

— 구제역, 부가가치세, 수의과학검역원 —

백 영 기

대한수의사회 고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1. 구제역과의 전쟁

多事多難했던 2011년은 우리나라 수의사들에게 커다란 試鍊과 아쉬움을 남긴 해로 기억될 것 같다. 2010년 11월 28일에 발생한 구제역은 쉽게 종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1년 4월까지 畜産農家를 공포에 떨게 하고 우리 수의직 공무원과 개업수의사들에게까지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다. 고심 끝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추가발생은 억제 했으나 지금도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그동안에 348여만 마리의 돼지와 소를 매몰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겪었을 우리 수의사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겹다. 우리 수의사들이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하였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았을 것이고 구제역이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지 알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제역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피해액 3조1천7백59 억원 이외에 보상받지 못하는 축산농가의 피해와 정성 들여 키우던 가축을 한꺼번에 잃게 된 농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현장에서 埋沒을 지휘, 감독하였던 수의사들은 당시의 정신적인 충격과 과로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도 값싼 수당을 받고 찬바람 눈보라 속을 헤쳐가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의 실시로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쉽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구제역이 왜 5개월이나 멈추지 않고 발생이 지속되어 막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이번의 사태를 교훈 삼아, 이 나라에 다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태세를 갖추어야 할 책무 또한 우리 수의사들에게 있으니 衆智를 모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살처분가축의 보상 문제, 예방접종에 따르는 부작용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도 현명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구제역은 이웃나라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염성이 강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나는 수의학도의 입장에서 국제적인 구제역연구소를 우리나라에 설

립하기를 제안한다. 가능하다면 중국, 일본, 대만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고 세계 각국의 연구진을 유치하여 하루 속히 구제역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반려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의 철폐투쟁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용역(서비스)의 제공과 정에서 얻어지는 이윤(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생활필수품(식용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 신문, 잡지, 우표 등과 교육 및 의료보건의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등에는 면세를 하도록 되어있다. 1976년에 제정된 이래,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보건의용역에 당연히 수의사의 용역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동물진료용역에 면세되어왔는데, 2011년 7월부터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반려동물의 진료와 사람의 미용수술 다섯 가지(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가 면세되는 진료용역에서 제외되었다. 사치성으로 해석되는 사람의 미용수술을 제외시킨 것으로 보아, 반려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사치품으로 해석한 것 같이 생각된다. 부자 감세를 한다면서, 그 감세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미용수술과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짐작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貧富의 구별 없이 대다수의 국민이 가족의 一員으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身體障礙者에게 도움을 주는 盲導犬, 聽導犬을 비롯하여 고독한 노인이나 환자 등에게 도움을 주는 介助犬의 역할과 마약을 탐지하는 探知犬, 인명을 구조하는 救助犬, 인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警備犬 등의 역할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복지생활에 必要不可缺한 것이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공중위생 면에서도 사람과 동일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광견병(공수병)은 개의 질병이지만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면 100% 사망한다. 그 밖에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을 퇴치하려면 감염원이 되는 동물의 질병에 대해서도 사람의 질병과 동일한 배려를 해야 하므로 부가가치

세도 당연히 면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부과로 진료비가 인상되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육을 포기하여 遺棄動物이 늘어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수용시설 확충 및 관리, 운영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유기동물의 수용시설이나 관리 실태로는 국제적으로 동물학대국의 汚名을 씻기가 어려울 것이니 동물복지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할 형편인데 여기에 충당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듯하다.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09년부터 개정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어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 때문에 연기된 바 있었고, 2010년 8월에 다시 언론에 보도되어 2011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의사협회의 기관지인 의협신문에 그 부당성을 꾸준히 홍보하였으나 우리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반대성명이나 서명활동을 포기하였는지, 우리의 언론매체(대한수의사회지)나 조직(수의사회)을 통한 언급이 거의 없었거나 극히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를 유치하는데 앞장섰던 동물병원협회나 대한수의사회 복지분과위원회가 부당한 이유를 나열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2010년 12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로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되었다.

이 문제의 반대운동에 뒤늦게 불을 댕긴 것은 2011년 3월에 서울시수의사회장에 취임한 손은필 회장이었다. 그는 3월 5일의 취임식에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시사 하였다. 구역역 사태로 인하여 4월로 연기되었던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서는 손은필 회장의 반대운동으로 뒤늦게 깨달았는지 입후보자 전원이 부가가치세 개정의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열을 올렸고, 회장에 당선된 김옥경회장은 손은필 서울시회장과 함께 식발을 하는 등, 극한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다행히 많은 회원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로 6월에 개최된 동물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문화제에는 32개 단체 회원 6,000명이 참석하여 기세를 올렸다. 김옥경 회장을 비롯한 열성적인 임원의 꾸준한 활동으로 잘못된 시행령 개정의 상당한 부분을 되돌리게 되었다 하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부가세 문제는 개정안이 완전 백지화될 때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난 일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한수의사회 집행부는 물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들 자신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뒤에서 불평만 토로하고 있으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3. 잃어버린 수의과학검역원

2011년 6월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이름이 사라졌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함께 병합, 편입된 것이다. 1909년 7월에 창설된 대한제국 輸出牛檢疫所의 후신인 국립동물검역소와 1911년 4월에 창설된 牛疫血清所의 後身인 수의과학연구소가 1998년 8월에 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합되었다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로 흡수된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익숙하였던 수의과학 연구원이나 동물검역원 또는 수의과학검역원이라는 이름이 없어진 것이다. 50여 년 동안 獸醫界에 몸담아 온 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기관의 명칭은 그 업무의 내용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문기관은 그 전문직을 표방하게 되므로 관계직종의 구성원들은 그 기관의 발전에 관심과 공지를 가지기 마련이다. 1998년에 수의과학연구소와 국립동물검역소가 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합되었던 것도 업무의 내용으로 보아 다시 분리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터인데 엉뚱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에 통합되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분야에는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엄연히 독립된 전문연구기관이 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 규모, 역사적인 배경 등으로 보아 당연히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라는 두루뭉술한 명칭의 기관에 통폐합되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의과학검역원의 통폐합방침은 2~3년 전부터 계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통합이 내정되고 개편작업이 추진될 때까지 대한수의사회지 등,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소식통으로는 알 수조차 없었고,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반대는 고사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통합되기 전에 통합을 저지하는 일과 통합된 후에 이를 백지화시키는 일은 호미로 막을 일을 불도저로 막아야 하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겠으나 우리는 기필코 잃어버린 우리의 이름을 찾아야 한다. 국립수의과학원과 국립동물검역원이 다시 독립된 기관으로 자리 잡고 국제적으로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뒤늦게나마 빠져린 반성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국립수의과학원과 국립동물검역원을 제자리에 찾아내기 위한 부활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